

A Financial Platform adding Value through Innovation

배출권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





CONTENTS

- ① 탄소중립 대응경과
- ② 배출권 거래제도 개요
- ③ 시장운영 현황 및 대응방향



기후변화 현황

- ▶ **[기온]** 최근(2011 ~ 2020년)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(1850 ~ 1900년) 보다 1.09 °C 상승
 - 최근 8년이 관측 기록상(1850년~) 가장 따뜻한 8년
 - 국내 역시 최근 30년 연평균기온이 과거(1912 ~ 1940년)에 비해 1.6 °C 상승하였고, 10년마다 0.2 °C 상승
- ▶ **[이상기후]** 세계 각지에서 폭염·홍수 등으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발생
 - '20.8월 북미대륙의 평균기온이 역대 1위, '22년 인도 중부의 4월 평균 최고기온이 37.78 °C 로 121년만에 4월 최고기온 기록 경신
 - '22.6월말 ~ 9월, 파키스탄 홍수로 1,700여명 사망
 - 국내의 경우 '20년 최장기간 장마(중부 54일) 발생, '22년 초강력 태풍인 '힌남노'로 강수량 기록 경신(경주 212.3mm(1위 경신), 포항 342.4mm(2위 경신))

(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발표자료 인용)

탄소중립 대응경과



국제사회의 대응경과

▶ [1992년 6월] 「유엔기후변화협약」(UNFCCC) 체결

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**세계 정상들이 동의한 협약**

▶ [1995년 3월] 「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」(COP) 개최

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**당사국 회의**

▶ [1997년 12월] 「교토의정서」(Kyoto Protocol) 채택(COP3)

기후변화협약에 따른 **구체적인 의무 기술('05년부터 선진국의 의무감축 시행)**

▶ [2015년 12월] 「파리협정」(Paris Agreement) 채택(COP21)

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교토의정서를 대체(**의무감축국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확대**)

탄소중립 대응경과



■ 우리나라의 대응경과 ■

▶ [2012년 5월]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정

국제협약 준수, 효과적 감축을 위한 **시장기능 활용**, 공정하고 투명한 배출권거래 등을 기본원칙으로 수립

▶ [2014년 1월] 정부는 KRX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

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등을 위해 KRX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하고, **KRX는 '15년 1월부터 배출권시장 운영**

▶ [2020년 12월]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 발표

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 탄소중립 선언에 우리나라도 동참(**2050 탄소중립 선언**)

▶ [2021년 9월]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

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장기 부문별·연도별 감축목표를 포함한 '**탄소중립·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 발표**'('23.4.11)



CONTENTS

- ① 탄소중립 대응경과
- ② 배출권 거래제도 개요
- ③ 시장운영 현황 및 대응방향

배출권 거래제도 개요



배출권 거래제도

- ▶ ETS (Emission Trading System), 거래 메커니즘 Cap & Trade

Cap & Trade

발행시장(할당)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시장

배출권 가격 중요성

- ▶ 배출권 가격은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써, 보유 배출권 평가, 기업의 가치 평가, 탄소감축사업 투자가치 평가 및 예산책정 등에 활용
- ▶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결정의 기준 → “유동성에 기반한 균형가격 형성 필요”

배출권 거래제도 개요



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

	1기	2기	3기
기간	2015 ~ 2017	2018 ~ 2020	2021 ~ 2025
적용	① 연평균 배출량이 12.5만톤 이상인 업체 / ② 연평균 배출량이 2.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		
총수량	1,704백만KAU (연평균 5.68억톤)	1,796백만KAU (연평균 5.99억톤)	3,082백만KAU (연평균 6.16억톤)
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· 전량 무상할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상할당(3%) 실시(경매제도 도입) ·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(유동성 강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상할당 비중확대(3% → 10%) · 제3자 시장 참여(증권사, 기관투자자 등) ·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도입

배출권 거래제도 개요



■ 시장제도 ■

- ▶ **[회원]** 할당대상업체 약 730개사(시장조성자 7개사[국책은행2개사+증권5개사] 및 자기매매 증권사 21개사 포함)
- ▶ **[거래대상]** 할당배출권, 외부사업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이 거래 대상이며, **할당배출권이 주로 거래됨**
 - **할당배출권(KAU; Korea Allowance Unit)** : 정부에서 업체별로 할당한 배출권 (예) 2022년 온실가스를 담는 배출권은 KAU22
 - **외부사업 감축량(KOC; Korea Offset Credit)** : 사업체 이외의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인증 받은 배출권이며, 할당대상업체에 한하여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
 - **상쇄배출권(KCU; Korea Credit Unit)** : 외부사업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으로 KAU와 구분해서 관리하며, 제출량의 5% 이내에서 할당배출권 대신 제출 가능 (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)
- ▶ **[거래시간]** 10:00 ~ 12:00
- ▶ **[결제주기]** 당일 결제 (결제대금 이체 13:30, 배출권 이전 15: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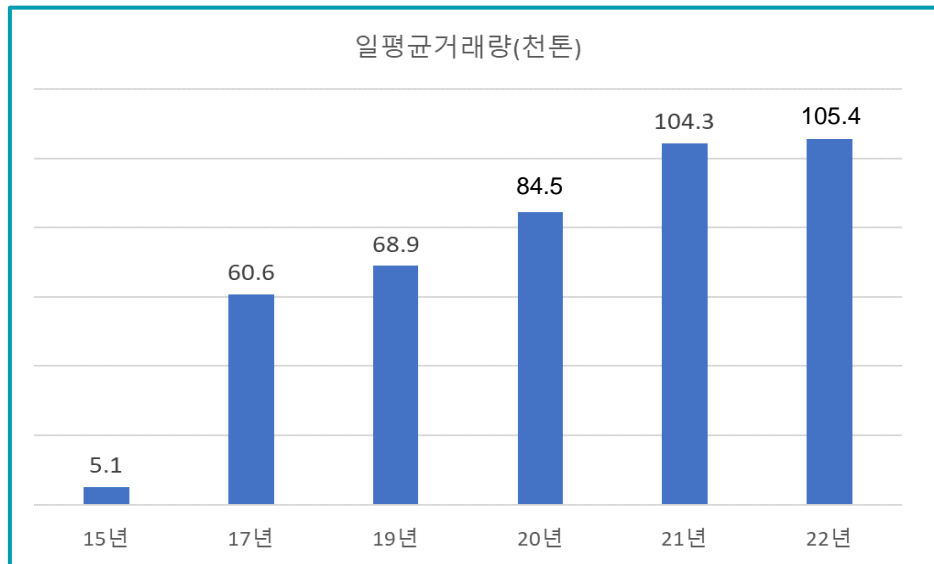
CONTENTS

- ① 탄소중립 대응경과
- ② 배출권 거래제도 개요
- ③ 시장운영 현황 및 대응방향

시장운영 현황 및 대응방향



배출권 거래시장 장내거래 규모 추이



거래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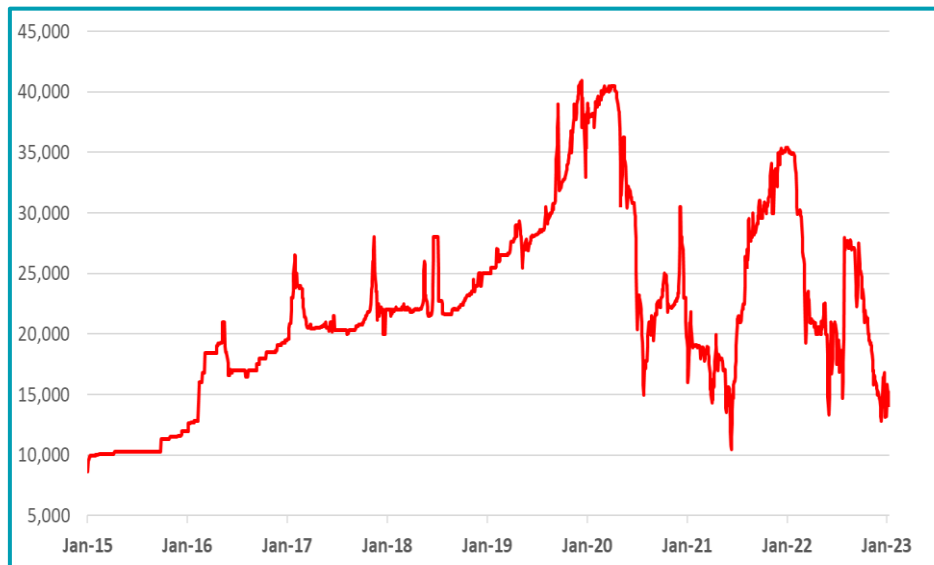
▶ '22년도 배출권 거래시장의 일평균 장내 거래량은 10.5만톤으로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

👉 '22년말 기준, '15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

시장운영 현황 및 대응방향



배출권 가격 추이



거래가격

- ▶ 배출권 가격은 40,900원 최고가('19.12.23) 기록 이후, 코로나19영향으로 '20.4월 하락
- ▶ ('21년 하반기) 경기회복 전망으로 가격은 다시 반등세 시현
- ▶ ('22년 상반기) 경기 둔화 우려(러시아 경제 제재) 등으로 하락
- ▶ ('22년 하반기) 경기회복 vs 경기침체 전망이 엇갈리며 상승 및 하락을 거듭 중



제3차('21~'25) 기본계획 추진내용

- ▶ **[추진배경]** “균형 탄소가격 형성,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”이라는 정부 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장내 유동성 확대 필요
 - 장내 유동성 부족에 따른 가격발견기능 약화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적 성장 저해
- ▶ **[추진내용]** 제3자(증권사, 개인 등) 참여 허용, 파생상품 도입, 유상할당 경매 확대(3% → 10%) 등 시장 유동성 확보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
 - 증권사의 자기매매 참여('21년말)
 -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('23년초)
 - 위탁매매의 단계적 도입

시장운영 현황 및 대응방향



제3차('21~'25) 기본계획 추진내용

증권사의 자기매매 참여

- ▶ 증권사의 KRX 배출권 거래시장 자기매매 개시 (21개사, '21.12월)
- ▶ 증권사 보유한도 확대 ('22.12월)

시장조성자 추가 지정

- ▶ 국책은행 2개, 증권사 5개사 (산업은행, 기업은행 / 한투, 하나, SK, KB, 신한, '23.1월~)
- ▶ 시장조성자 보유한도 확대 ('23.1월)

위탁매매 등 도입

- ▶ 제3자 시장참여를 위한 위탁매매 및 배출권 선물 도입 추진
- ▶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 도입을 통해 거래 활성화 필요

A Financial Platform adding Value through Innovation

감사합니다

